

# 치아의 날, 진정 흐르지 않는 강물인가?

올해 또다시 6월 9일 치아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 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치대 교수 임용 비리사건의 악몽을 잊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해마다 개최되는 치아의 날 행사에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치아의 날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치아의 날, 진정 흐르지 않는 강물인가?

구강보건행사의 역사

치아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

강성미/MBC 스크립터

정상희/96년 건치가족 수상자

나용식/매킨토시 디자이너

세계 각국의 '치아의날', "잔치 잔치 벌었네"

신승철/단국치대 예방치과

"공중보건치과의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백승엽/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 97년 대표

뚜..., 뚜..., 통화중이다.

'킷, 있다가 다시 해 봐야겠군' K지부의 사무국장은 걱정이다. '이번 치아의 날 행사에는 어디에 초대권을 배포해야 행사장의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H여성 협회에서 50장 정도 소화하고 D단체에서 한 30장 정도만 소화해 주면 될텐데...'

오늘 K지부의 사무국장은 머리를 굴려(?) 계산해가며 치아의 날 행사 초대장을 어느 곳에 보내야 하는지 고심중이다. 매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있을 뿐이다. 소위 고객(?)을 끌어 모을 대안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 세월은 흘렀지만 치아의 날은 변함없다?

K지부뿐만 아니라 많은 지부에서 치아의 날 행사는 통과례적인 일상사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다. 지난 97년 각 지부의 6·9제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건치가족 선발, 건치아동 선발, 아동 글짓기 및 표어 포상, 모범 양호교사 시상, 불우노인 의치장착 등의 비교적 대중 소이한 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각 지부의 독창성이 부여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인의 눈을 끌기에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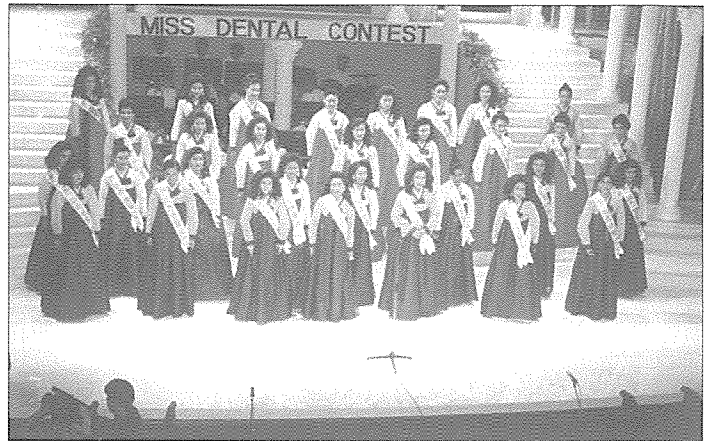
'친편일률적 집안잔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아의 날 행사에 대해서 K회원은 이렇게 말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관계자들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물론 환자와의 약속도 중요하고 병원을 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여를 유도해도 도와주지 않으니 일을 추진하는 진행자의 입장에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벤트성 행사. 행사장 좌석을 메우기 위해 초대장을 배포하고 몇 명이 참석하는지 확인하는 비생산적인 행동은 치아의 날이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심지어 K회원은 치아의 날이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바에야 없애버리고 그 예산으로 국민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극단적 표현을 한다.

그러나 치아의 날의 전통이 53년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거나 그 주간에 홍보의 힘이 모여져 있는 것을 감



몇년전 여자치과의사회에서 마련한 미스 덴탈 선발대회

### 치과계에서도 치아의 날을

좀 더 독창적이며 의미있는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주연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 날이

진정한 국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치아의 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안하지 않더라도 치아의 날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치아의 날은 치과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 행사 중의 하나다.

6·9제는 곧 대국민 홍보라는 인식이 깊숙히 뿌리박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도는 아직 미약하다. 솔직히 기자 본인도 치아의 날이 있음에 치과계에 몸담은 후에 알게 됐으며 한 동료 직원은 치과계에 몸담지 않았다면 치아의 날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 치협 주체의 행사 마련... "국민을 잡아라"

그렇다면 왜 아직도 국민은 치아의 날을 모르는 것일까?

치아의 날이 곧 구강보건 계몽주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론적으로 홍보에 대한 전략적 부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지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여파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규모가 적은 활동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한 곳에 힘을 집약하는 것보다 홍보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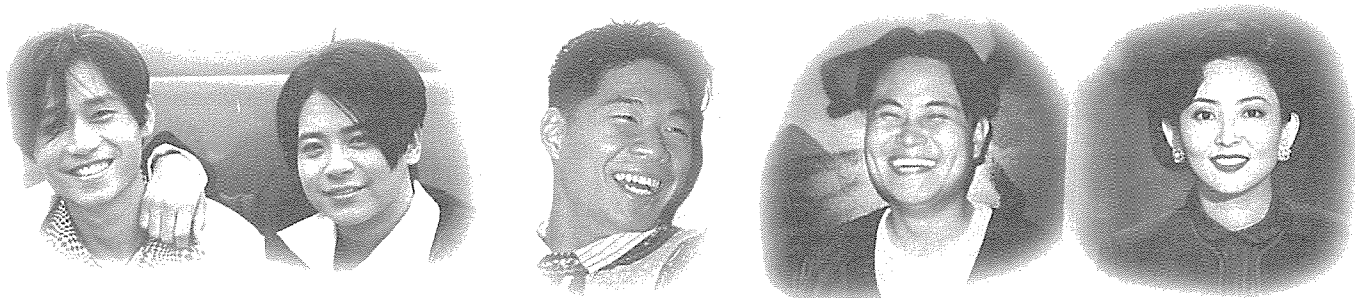
각 지부의 활동사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엉뚱하게도(?) 이구동성으로 치협에서는 치아의 날 행사에 무엇을 하느냐고 되묻는다.

물론 치협에서도 치과상식, 임상 등의 구강보건 보도자료를 만들어 마스크에 배포하고 있고 98년에는 파

조.”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끄는 하나의 방법으로 풀무원 홍보실 담당자는 유명인을 앞세운 홍보 효과를 지적하며 연예인을 매년 한 명 선정, 치아의 날과 같은 중요한 날에는 구강보건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물론 연예인을 이용한 홍보가 치과계의 정서와 맞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선정한 건치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왼쪽부터 가수 녹색지대, 농구선수 현주엽, 김진수 MBC 개그맨, 정혜정 MBC 아나운서)

건강연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갈 예정이지만 그것이 6·9제 이외의 기간에 보도되도 무관한 일상적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치아의 날에 전국적 규모의 행사를 치러 홍보에 대한 구심점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지부의 L회원은 “작년에 치러진 FDI 행사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그 행사의 규모는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행사와 비견할 수 없지만 행사를 전국적 규모로 늘린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치협이 주도를 하고 매년 각 지부를 돌면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치르지 않는 지부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찬조금 식으로 내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치협에서 주도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뭔가 중심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MBC 스크립터로 근무하는 강성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매년마다 각 일간지 및 방송사로 보내진 수많은 보도자료 중 얼마나 많은 양이 기자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방송매체든 신문매체든 기자의 규모가 크면 찾게 돼 있거든요. 기자는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항상 무엇인가를 찾고 있으니깐요. 물론 규모만 커서는 안되고 일반사람의 눈을 잡을 수 있어야겠

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엔의 경우 지난 5월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홍보사절을 찾아 할리우드를 방문한 예는 방송과 신문이 연예인의 동정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치과의 한계성,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라고 하는 분야가 갖는 한계성도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스크에서는 치과를 하나의 독립된 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마스크 종사자는 치과를 안과나 이비인후과, 피부과와 대등한 하나의 과 정도로만 인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경기지부 김기달 공보이사의 경우, TV의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치과의 한계성을 느꼈다고 한다.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란 프로그램을 보면 치과가 갖는 한계에 대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백혈병을 앓는 어린이에 대한 방송이 나갔는데요, 굉장한 돈이 모이더군요. 근데 치과는 심각한 병으로서 어필하는 정도라든지 절박성이 너무 미약해요.”

이 외에도 치과계가 안고 있는 한계성을 생각해 보면 치과의사들의 비적극적 태도이다. 실제로 K지부의

공보이사는 치과의사도 안에서만 진료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원의 호응도가 너무 낮아 단지 1개 분회만이 도와주겠다는 확답이 왔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사회의 주최로 '당뇨병을 올바르게 알자'란 주제를 갖고 열린 서울시민 당뇨 걷기대회에는 당뇨병 환자와 가족 및 일반시민 등 1만5천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경제신문에 일제히 보도되는 대단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서 의사들은 직접 혈당을 측정해 주고 건강에 대해 상담하는 한편 당뇨심포지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자기 손으로 일구어 낸 것일수록 값지게 느껴지는 법이지만 자신이 임원이나 주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새로운 일이 하나 더 주어졌다는 부담감보다는 진료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본다는 느낌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치과와 관련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사고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니까.

치아의 날 행사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목일에 모든 국민들이 나무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듯이 6월 9일이 치아의 날임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 6월 9일 하루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구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시민과의 한마당을 통해 직접 일반인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연극〉 97년 7월호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유서 깊은 예술축제들이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2000건에 이르고 특히 미국(400여개), 영국(148개), 이탈리아(120개) 등이 활발하다고 한다. 단연 유명한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이나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차치하고라도 수많은 연극들이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관객에게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치아의 날을 좀 더 독창적이며 의미있는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주연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 날이 진정한 국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치아의 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취재/안정미 기자

## 구강보건행사의 역사

치협은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는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재발족하고 이듬해인 1946년 6월에 '구강위생강조주간'을 설정함으로써 제1회 구강보건주간행사가 시작됐다.

매년 6월 9일부터 15일간을 '구강위생강조주간'으로 설정한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기간 동안에 전국 치과의사들이 총동원하여 각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구강검사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강연 등을 펼치고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대국민 계몽사업을 펼쳐나갔다.

1949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로 협회명이 개명되었고 제4회 구강위생강조주간 때부터 치협은 행사실시에 따른 지시사항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그 내용은 주간행사에 관한 선전방법, 순회강연, 구강위생에 관한 무료상담 및 진료실시 등이었다.

그 후 1950년부터 1952년까지는 한국전쟁 발발로 제5, 6,

7회 구강위생강조주간 행사가 실시되지 못했으며 1953년에 제8회 행사가 실시됐다.

1973년에는 정부조치로 나병의 날, 약의 날, 눈의 날 등이 구강보건주간과 더불어 4월 7일 '보건'의 날로 통합됐다. 따라서 치협은 자체 행사로 7월 14일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거행, 건치아동, 건치노인, 건치여왕 등에 대한 시상을 했다.

1987년에 들어서면서 행사규모가 좀 더 다양화되기 시작해 제42회 구강보건주간에 서울지부는 제1회 치과인 문화제를 개최했다.

1989년 제44회 행사 때는 서울지부에서 치과인 문화제의 일환으로 최초로 치과인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이것을 기회로 덴탈컬러스가 구성돼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 행사 기금은 불우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서울시에 전달됐다.

치아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

내 사전에 치아의 날이란 없다

강성미/만25세, MBC 스크립터

TV를 통해서 건치가족이나 건치연예인에 대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치과와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6·9제가 국민들한테 또렷이 박힐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단어들은 고유명사화돼 버렸잖아요.

6월 9일이 정말 치과계에 의미있는 날이라면 고유명사화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함께 느끼는 행사가 됐으면 해요. 6·9라는 단어의 어감이 실제적으로 와 닿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과와 관련된 참신하고 산뜻한 용어를 공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회의 용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또한 전국민에게 홍보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겠죠. 만약 상품까지 빵빵(?)하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테구요.

그런데 왜 달력에는 치아의 날이 표기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은 아직도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 모자랍니다”

나용식/만28세, 매킨도시 디자이너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번도 치과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치아건강이나 치아의 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는데 파랑색 바탕에 3·3·3이라고 써어진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뭔가 하고 자세히 보게 됐어요. 구강보건에 대한 내용이더군요. 보고 나니깐 '한번 치과에 가서 구강검진을 받아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 동네에 있는 치과에 가 봤어요. 큰 문제가 없어서 스케일링만 받았어요. 이가 좀 시리긴 하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같은 일반 사람은 아직 치아에 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치과 대기실에서 만화로 꾸며진 치아상식을 봤는데요, 재미있더군요. 은행이나 영화관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긴 장소에 그런 자료가 배포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들은 치과상식에 대해서 무지한 면이 많거든요. 음, 또 TV같은데서 공익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서 국민한테 계몽할 수 있는 치아상식에 대해 알려줘도 도움이 많이 될 듯 싶네요.

건치가족 수상... 잊을 수 없는 추억

정상희/서울시치과외과학회 96년 건치가족 수상자

지난 96년에 어머니와 저, 아들 삼대가 함께 건치가족 선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결석을 해야 하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의미있는 일이기에 감수하기로 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태연한 척 했지만 대기실에 앉아 있는 다른 가족들을 훑쳐보며 은근히 애가 탔습니다. 등수에 못 들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이를 닦자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의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긴장하던 순간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1등 오복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뺨과 입술에 경련이 일 지경으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 물론 TV에도 나왔구요. 그후 아들은 아들대로 학교에서 스타가 됐고, 어머니는 노인학교의 영웅(?)이 됐어요. 저한테는 소식이 끊겼던 동창생에게서 전화가 왔고 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한테도 연락이 올 정도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눈치보며 하던 잔소리를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하시게 됐습니다.

“식사 후 이를 꼼꼼하게 닦아라. 칫솔 말려 써라. 단 것 먹지 마라. 야채 많이 먹어라.”